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26호

발행일 : 2018 . 6 . 3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이달의 간증>

이영주 집사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써 내려 가야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기억하고 계셨기에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직접 계획하시고 이끄심을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 우리 막둥이 장미가 고1때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여러 날 고민하며 남편과 상의했고 장미와도 충분히 대화한 후 서울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전학을 놓고 하나님께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전학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서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아이가 다시 당진으로 전학을 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당황스러웠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저는 우왕좌왕 할뿐 어떤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기도팀에 장미의 전학 문제를 기도제목으로 내 놓고 먼저보다 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주며 힘을 보태어 주던 이영선 집사님은 망설임 없이, 무슨 생각이 필요하냐고~ 장미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장미는 전학을 간 지 한달 조금 넘었을 때였기에 불가능할거란 두려움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울로의 전학을 결정하기까지 전적으로 장미의 선택을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당진으로 오겠다고 말하며 서울에서의 학교생활이 두렵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곳 아이들이 장미를 이방인 취급 하고 함께 놀아주지 않거나 친절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학교 전학은 세종시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다급해진 마음으로 교육청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고 다음에 전화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형통케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 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고 옮겨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기도 없이는 옮기지 않을 정도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이영선 집사님의 기다리지 말고 그냥 이 길로 바로 교육청에 가자는 격려와 위로에 더욱 힘을 얻어 가보았지만 역시 담당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담당자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더라구요. 전후 사정을 다 말씀 드렸더니 다시 송악으로 올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놀라웠고 감사의 고백은 입술에 찬양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장미가 서울로 갔을 때 주소 이전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었거든요. 만약 주소 이전을 했으면 다시 당진으로 오는 일은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미의 주소지가 당진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오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미리 아시고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서울학교로 교육청으로 또 송악고로 다시 세종시 교육청으로..... 집사님과 발걸음을 옮길 때 마다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때그때마다 해결 해 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었고 지금 우리 장미는 당진에서 송악고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장미가 예배 전 찬양을 드릴때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때면 장미가 서울학교에 계속 있었다면? 하고 문득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찬양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이런 저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며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이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많이 주시려 하는데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 말씀처럼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행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장미 또한 이번 일을 통하여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진순복음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송이, 승혁이, 장미 나의 이 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열매 풍성히 맺어 모든 이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성도 알아가기.

늘 몸뚱 교회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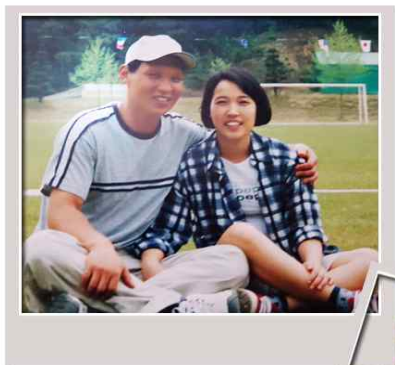
헌신하시는

집사님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1. 자기소개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통상적이긴 하지만 연주, 연우의 엄마예요. 그리고 당진순복음교회의 집사로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지게 소개 못해서 죄송합니다.

2. 집사님의 인생 좌우명은?

우리 아이들을 핸드폰에 저장하기를 “착한 딸” “착한 아들”이라 해놨습니다. 주님처럼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착하게 살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착하지는 않잖아요. 이번에 좌우명을 밝혔으니 착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3.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 하더라고요. 집사님은 어린 시절 공부를 잘하셨나요?

이런 걸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다니~ 당연히 잘하지 못했지요. 아주 못하지는 않았구요.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4.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남편은 제 친구의 남편의 친구입니다. 좀 어렵나요? 제 친구의 약혼식 날! 그날이 우리부부의 만남 1일이에요. 친구가 소개도 안 시켜줬는데 알아서 만났어요. 알고 지낸 건 그 전부터였구요. 저는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당진(면천)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차라 남들처럼 그리 자주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길이 뚫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예 전에는 도로가 안 좋아서 소요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래도 눈에 콩깍지가 씌여서 그런지 좋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하겠다고 말했을 때 바로 OK! 하고 현재는 이렇게 부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5. 남편분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경기도 여주에서 법인을 얼마전에 내서 주식회사 “우주”라는 사업체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감 잡으셨나요? 연우에 “우” 연주에 “주”자를 따서 상호명이 우주예요. 멋지죠~~ 높은 빌딩이나 큰 공장건물등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철골로 만드는 빔이라고 하는데요. 건물 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조물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6. 자신의 성격 장점과 단점을 쪽~~ 서술해주세요.

질문이 영~~~ 쪽 이라고 하시니 단점을 엄청 많이 말씀드려야하는 것 같아서 패스할게요.

단점은 제가 좀 급한 성격이라 빨리 빠리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래 서 다른 분들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우유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맺고 끊는게 좀 부족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갈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많으나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7. 부부는 살아가면서 서로 닮는다고 하지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요.

우리는 주말부부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8. 우리 부부 자랑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서로간에 배려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올해 2월 1일 일을 하다가 발가락 세 개가 골절과 으스러짐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일주일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걱정할까봐요.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남편의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9. 부부가 살다보면 부부싸움 할 때도 있을텐데 집사님은 어떻게 화해하세요?

저희 부부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주말부부라서 싸울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구요. 신혼시절에는 큰소리가 나기도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먼저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10. 나이 들기 전에 남편과 단 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남편이 너무 여유없이 바쁘게만 살아서요. 저는 그냥 소박하게 남편과 해외여행입니다. 소박한거 맞죠!

11. 남과 북의 통일에 관한 집사님의 소신 있는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남북통일이 되는 것은 원하지만, 돈으로 하는 통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2. 내 인생 최고의 리즈시절 최고의 날은?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참 생각도 많이 나고, 친구들과 어울려 구내식당에서 라면 사 먹고 수업시간에 몰래 떡볶이 먹으면서 스릴을 느꼈던 때요. 한 날은 제가 주도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바람에 선생님 께 혼나기도 했었구요. 저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가겠냐고 물으신다면 고교시절입니다.

13. 부모님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께서 흰머리가 많은게 창피해서 학교도 못 오시게 하고, 버스에서 만나도 모른척 고개를 돌리고, 많이 서운하셨을 텐데도 내색 안하 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못된 자식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내라고 제 일 많이 예뻐 해 주시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잘 놀아주셨던 아버지예요. 엄마는 때걸이가 없어 어려울 때는 동네가게에서 외상으로 국수를 가지고 오셔서 삶아주셨던, 당신의 자존심은 진작에 버리고 사셨던 가난한 시절의 그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네요. 지금은 몸이 편찮으셔서 거동도 못하시고 힘들 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는 엄마입니다.

14. 집사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먼저는 남편이 예수님을 함께 믿고 구원받아 예배드리러 저와 같이 가는 것이구요. 그 다음은 떨어져 사는 우리부부가 여느 부부와 같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진에서요...

15. ‘서로 사랑하며 살자’ 라는 말씀을 듣고 집사님께서 실천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실천하기보다는 받은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나누는 것을 즐거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6. 사랑구역으로 사행시를 지어주세요.

사 사모하는 마음으로

랑 낭자에게 말합니다.

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 이 환난을

역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시다!

17. 집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늘 체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가족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8. 베드로가 고백을 잘하셔서 열면 닫을 수 없고 닫히면 열 수 없는 천국열쇠를 얻었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9. 2018년에는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집사님의 결심과 결단을 말씀해주세요.

올해 심방말씀이 은혜가 삶에 임하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실천사항 으로는

첫 번째, 믿음으로 충성하여 형통한 삶

두 번째,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 축복된 삶

세 번째, 견디고 기다리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겠습니다.

감사릴레이

김희주 집사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 온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연약하여 세상을 많이 돌아보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협력하여 주님과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다음 릴레이 주자 : 이재동 집사

나는

나는

철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선과 악을 구별하고 사랑할 줄 알며

용서하고 포용하며 겸손할 줄 아는

나는

철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불의한 일을 지적하며

공의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승리자 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에 합당함을 간구하며

작은 열매를 차곡차곡 맺어가는

나는

진정 승리자 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조용히 제게 묻습니다.

너의 속사람도 그러하더냐?

이제 나의 겉옷을 벗어 버리려 합니다.

사랑 뒤에 숨어 있는 위선을

고백 뒤에 품고 있는 알량함을

열매 뒤에 숨어 있는 실망을

겉옷에 감추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나는

속사람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진순복음성도...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



리브가 여선교회 회원님들의 올해 맺고 싶은 열매의 소망을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나눠 보고 함께 기도해요^^

김경숙 성도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여동생이 이사 했습니다. 동생네 가족이 모두 건강하길 원하고 특히 여동생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머물길 기도합니다.

김정애 집사님

자녀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복된 입술이 되길 기도하고요~ 내집 마련!! 꼭 하고 싶습니다.

김순미 권사님

정민, 정석이의 계획과 삶이 주님 주시는 축복과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박기숙 집사님

남편의 구원과 장막의 축복~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며 삶에 형통함과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박순남 권사님

혜주 혜지 두 딸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송정숙 집사님

자녀들의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겠습니다.

원재옥 권사님

가족 모두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이영주 집사님

승혁이가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중국팀과의 계약)잘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아들 되길 원합니다.

최은주 집사님

남편의 영혼 구원! 은희 신성대 물리치료학과에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세요!!

* 결심과 실천에 대한 자아성찰 *

장명희집사 (4번) - 재도전

1. 100% 2. 75% 3. 50% 4. 25% 5. zero

이종희집사 (4번) - 재도전

1. 100% 2. 75% 3. 50% 4. 25% 5. zero

**** 꼭 재도전시에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이달의 결심과 실천 *

임경아 권찰

저는 일주일 최소 1번의 기도모임 참석을 결심합니다.

늘 마음이 있었지만 실천을 하지 못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보시는 라이프지에 공개적으로 결심합니다.

제겐 기도가 너무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결심의 실천으로 신앙을 회복하며 가정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 6.25 전쟁



6·25 사변이라고도 하며, 국제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라 불린다.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국군은 북한의 앞선 병력과 무기에 밀려 한 달 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후퇴하였다. 이어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열려 유엔군이 파병되었다. 유엔군의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군이 개입하자 다시 서울을 빼앗겼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투가 계속되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명 피해가 약 450만 명에 달하고, 남한의 43%의 산업 시설과 33%의 주택이 파괴되었다. 남북한은 휴전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 남북이 다시 만나 종전 협정을 앞두고 있다.

르우벤(Reuben)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다. 레아의 비천한 처지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아들의 이름에 표현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믿음과 사랑으로 얻은 딸이라 하여 [신애]라 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아들이라 하여 [천복]이라 이름 짓는 것과 흡사하다.

만일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 주시지 아니 하셨더라면 그는 천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리고 첫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는 사랑 받는 아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너무나 분에 넘치는 아들이었기에 르우벤이라 이름 지었던 것.

그러나 르우벤은 야곱의 장손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였으나 장자의 기득권을 빛나게 발휘하지 못했으며 레아가 기대한 만큼 이름값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다와 요셉의 축복에 비하여 르우벤의 축복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 요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승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으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창49:3-4)

왜 그는 이스라엘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권은 레위에게로, 통치권은 유다에게로, 상속권은 요셉에게로 넘겨주고 말았을까. 무엇보다 그는 장자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의 치명상이다. 동생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하고 [피를 흘리지 말라]는 권고 밖에 못했다는 것은 그의 무능을 입증하며, 그리고 일가족과 함께 뽀엘로 올라가던 도중 그의 서모 빌하와 통간했다는 것은 그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르우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장자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신앙으로 그 섭리를 받들지 못했을 때 그는 섭리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5월 한달이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5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나눔'이라는 주제로 한달 간 3부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첫 주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린이 잔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기도 하고 준비 해 주신 음식도 맛있게 먹으며 포토존에서 기억에 남을만한 인생 샷 까지~ 정말이지 알차고 즐거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둘째 주는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는 야외예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이 뛰어 놀고 게임도 하며 선생님들이 준비 해 주신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찾기를 해서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한 친구나 언니 오빠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살뜰히 챙겨 주며 이를 통하여 나눔을 잘 실천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셋째 주는 성경 골든벨!! 로 우리 아이들이 올해 들어 배운 설교와 공과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를 푸는 시간이었는데요. 열기와 열정으로 가득한 시간이었고 문제를 풀어 가는 모습은 우리 교사들을 참으로 흐뭇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은사를 사모해요' 라는 제목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은사가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들이 은사를 사모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함께 기도 해 주세요.



어린이 주일.

서로
사랑하며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서로
사랑하





효도여행



탁구대회

제 1 회 교회배 탁구대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성경 숨은그림찾기



어만하면
몇 년 동안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수 있겠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숨은그림: 두루마리 화장지, 대함(조개), 촛불, 나팔, 반지]

*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 essay.300 -



응답은 못 받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나 있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다!

*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투심의 계획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관악여상 교목실장 시절이니까 4반세기가 훨씬 지난 옛날 얘기다. 쪽빛 하늘엔 점점이 작은 구름이 몰려 왔고 교문 앞 코스모스는 하늘을 향해 생글생글 웃으며 춤을 추던 어느 날, 얼굴에 핏기라곤 하나도 없이 창백해 보이는 어느 학생이, 무거운 책가방을 힘겹게 들고 느지막이 언덕길을 오고 있었다. 3학년 「현정이」 학생이었다.

“졸업시험 기간인데, 왜 이렇게 늦었니? 담임선생님 보시면 꾸중하시겠다.”

“병원에 입원했다 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가지 마라 하셨지만 사정사정 하여서 이제야 나왔어요.”

“아이구 저런! 어디가 아픈 것이냐?”

“혈액암...이라는 백혈병...이래요.”

대답하는 현정이의 모기 소리엔 아무런 감정도 묻어나질 않았다. 나의 가슴은 낭떠러지 바닥에 굴러 뒹개지고 입에선 침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저리도 고운 얼굴에 핏기라곤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구나...’

‘주여, 저 어린 딸을 구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길밖엔 없었다. 하늘에 손을 대면 손도 파래질 것 같은데, 내 마음의 하늘은 먹구름만 가득 찼다. 기도밖에 못하는 나는, 티끌만한 개미 새끼... 이 개미의 기도까지도 주께서는 들으시리니... 며칠 후, 현정이의 담임이 신 하선생과 교목실의 조선생과 세 사람이서, 입원한 현정이의 문병을 갔다. 그런데 현정이의 자리는 비어 있어 옆의 침대 환자에게 웬일이나 물었더니, 교통사고 당하여서 입원한 어린이와 같이 놀아주려고 위층으로 갔단다.

담임선생은 위층으로 얼른 뛰어올라가 다정하게 현정이의 손을 잡고 돌아왔다. 우리들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현정이를 어서 빨리 고쳐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한 후 눈물들을 훔치는데, 현정이는 웃으며 밝고 맑은 목소리로 도리어 우리들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목사님, 그리고 두 분 선생님, 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갈텐데, 어찌하여 눈물들을 흘리시나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요즘 저의 기도랍니다.”

고등학생으로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반주로 봉사하는 현정이 믿음의 어느새
이만큼 자란 것에 나는 너무 감격하여 현정의 손을 잡고

“현정아,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죽음도 초월한 네 믿음이 장하다. 그러나 정
말 참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
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표본이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께서도 죽
음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셔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 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
14:36).

“네게도 소원이 있을 것이 아니냐. 주님처럼 네 소원을 모두 아뢰고 그 다음
에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
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내 말 알았지?”

“목사님, 제가 몰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제 소원을 아뢰겠어요.”

“현정아, 간절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요, 무남독녀 외동딸이거든요. 제가 먼저 죽으면, 혼자 남는 엄마가 너무
너무 가슴 아파 하실 것 같아….그래서 첫째로 엄마 가슴 안 아프게….둘째로
는 졸업이 몇 달 후인데, 졸업장 타나 마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왕이면 졸업 후
에 죽게 해 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 드리겠어요.”

“고맙다, 현정아, 나와 선생님들도 너를 위해 그렇게 주께 기도드리마.”

우리 기도 들으시는 주 예수님은 현정과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졸업한지
1주일 조금 지나서 하나님은 현정이를 데려가셨다. 차를 몰고 찾아 간 강남의
성모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흰 옷을 입고 있는 현정이 엄
마가 만면에 웃음 띠고 우리에게 인사한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아니다. 표
정은 방글방글 웃고 있는데,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었고, 말할 때도 눈물이
줄줄 새는데, 현정 엄마 얼굴은 웃고 있었다. 우리는 현정의 어머니에게 놀
라운 신앙의 간증을 들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 다녀가신 후, 현정이는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관
악여상 졸업장을 받은 다음에 데려가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들으셔서 현정이가 졸업장을 타던 그 날에 나는 정말 기뻐서 울었습니다. 기도 들어주셔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현정이가 숨을 거두자 나는 너무 서러워 울었습니다. 이 세상 살 희망이 사라졌기에 몇 시간을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지 여러 시간 흘러갔는데, 현정이가 눈을 뜨고 살아났어요. 의사들도 「기적」이라 기뻐하였죠. 나는 너무 기뻐서 엉엉 울었죠. 그러자 현정이가 말을 했어요. 저의 손을 꼬옥 잡고, 내 눈을 보며 그 동안 되어진 일들을 들려줬어요.”

“엄마, 엄마, 그만 울고 내 말 들어봐요. 나는 방금 하늘나라 올라갔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엄마 생각도 잊고 천사님과 손을 잡고 돌아다녔죠. 하늘나라 여기 저기 구경하는데, 천사님이 다정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정아, 아무래도 아니 되겠다. 너에 엄마가 저렇게 울고 있으니, 주님께서 너를 잠시 돌려보내어, 하늘나라 소망을 알려준 후에 다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 어서 다시 돌아가거라. 어서 가서 울고 있는 너의 엄마를 위로하고 여기서 본 것 말씀드린 후 다시 오너라, 하시며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엄마, 나는 다시 하늘나라 갈 테니까, 이제부터 절대로 울지 말고 살아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씩씩하게 살아요. 절대 울면 안 돼요. 약속해줘요. 손가락을 걸고 나와 맹세해요. 언젠가 주님께서 엄마 불러주시면 기쁨으로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엄마, 이제 가야 해요, 기다릴게요.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나요.’

그리고는 내 볼에 입을 맞추고 자는 듯이 하늘로 돌아갔어요. 나도 예수 믿은 지 오래 됐지만, 이제 생각하여 보니 헛 믿었어요. 다행히 주님께선 현정이를 통하여, 늦게나마 천국믿음 주시었으니 나는 다신 울지 않으렵니다. 남은 생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현정이를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나도 오라 부르시면 기쁜 맘으로 세상 떠나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떠나는 우리 일행은, 형언 못할 하늘 평화를 맛 보았다. 새아침 안개 처럼 「쓰나미」 처럼 주님 주신 평화가 내 맘 속에 밀려올 때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이렇게 감사기도 드렸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참으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새 날임을 나 어린 제자의 값진 삶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여주시니,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퍼온글

유머

● 카네기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다. 그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과일가게에 갔다. 가만히 서서 뚫어져라 딸기를 쳐다보자 주인 할아버지가 한 움큼 집어먹어도 된다고 했다. 카네기는 계속 쳐다만 보았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딸기를 한 움큼 덩석 집어서 주었다. 나중에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얘야, 할아버지가 집어먹으라고 할 때 왜 안 집어먹었니?" 라고 말하자
"엄마, 내 손은 작고 그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요."

● 독일의 통일을 이룬 헬무트 콜 총리는 정원을 청소하다가 수류탄 세 개를 주웠다. 콜 총리는 아내와 함께 그 수류탄을 경찰서로 가져가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가는 도중에 수류탄 하나가 쿵 터지면 어떡하죠?" 그러자 콜 총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 경찰에게 두 개를 주웠다고 말하면 되니까."

자신의 죽음은 뒷전이고 아내를 안심 시키려는 순발력과 대답이 정말 재치 있지요.

● 성경 넌센스 퀴즈

- 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별은? 천벌
-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중 제일 큰 것은? 낙타
-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개 이름은? 무지개
- 꽃 백송이를 모아서 만 든 꽃은? 백합꽃
- 교회의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은? 피뢰침
- 출전한 선수 모두가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는 운동 경기는? 합기도
-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것은? 과
- 나면서부터 배를 탄 사람은? 모세
- 성경 인물 중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은? 모세
- 성경 인물중 최고의 예언가는? 미리암
- 최초의 동물원은? 노아의 방주

시사용어 Briefing

소확행(小確幸)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 주택구입, 취업 결혼 등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쫓기보다는 일상의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 또는 그러한 행복을 말한다.

플라시보(Placebo)소비 : 가심비

플라시보 소비는 가격대비 자기 만족도를 중시하는 ‘가심비’ 소비를 의미한다. 그동안 가격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가성비’가 트렌드였지만 이제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의 만족을 줄수 있는 상품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플라시보 소비가 떠오르는 이유는 일상 속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이들이 많고 그럴수록 소비 즉시 쾌감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케렌시아(Querencia)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또는 그러한 공간을 찾는 경향을 의미하며 ‘퀘렌시아’라고도 한다.

원래 케렌시아는 스페인어로 ‘애정’ ‘애착’ ‘귀소본능’ ‘안식처’ 등을 뜻하는 말로 투우(鬪牛) 경기에서 투우사와 싸움 중에 소가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는 영역을 이른다. 이는 경기장 안에 확실히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투우 경기 중에 소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곳으로, 투우사는 케렌시아 안에 있는 소를 공격해서는 안된다.

워라벨 : 일과 삶의 균형

일-가정 양립 Work and Life Balance

개인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원래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정되어 사용되다가 노동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남녀,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갑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중 자신이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권력이 있다고 생각 되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폭행하고 조롱하기를 일삼는다. 뉴스를 보다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고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일삼고, 식당에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가게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이나 계약직원을 조롱하거나 불리한 여건으로 몰아가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 사망한 LG 구본무 회장은 이와는 다르게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며 사회에 많은 덕을 쌓아 온 것이 여러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 된 바 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런 분의 삶을 본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라며 기도한다. 또한 일명 가진 자들은 갑질 행태가 자신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들며 사회에 씻을 수 없는 문제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깨달았으면 한다. 게다가 요즘은 아기 엄마들의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노키즈존이 생길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도 (엄마 갑질) 논란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베풀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매장 등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거나 다른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선언한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한나여선 헌신예배 / 6월 3일 오후 7:30
2. 사라여선 헌신예배 / 6월 17일 오후 7:30
3. 제직세미나 / 6월 21일 오후 7:30
4. 태국단기선교 / 6월 25일~30일
5. 소방시설공사 / 6월 7~22일

● 공지사항

1. 생활실천표어 / 네 믿음을 확증하라
2. 신앙서적 /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한기홍' 저
3. 임시공동의회 / 6월 3일 오후 12:30
4. 배드민턴대회 / 7월 14일 - 열심히 연습하세요.

● 이달의 교우소식

1. 군입대 / 이성재 청년 - 6월 11일
2. 결혼식 / 나빈휘 청년 - 6월 30일
3. 교단 전국사모연합회 총회 / 이영주 사모 - 6월 18일~20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 사모 : 010-7747-5278, 윤희자 전도사 : 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